

세금으로 교수 밥그릇만 키운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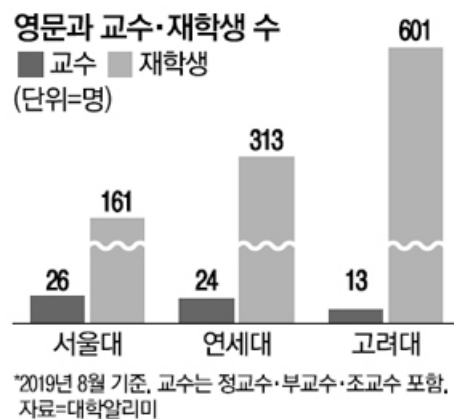
기사입력 2019-12-01 17:59 최종수정 2019-12-01 18:08

서울대 영문과 고려대에 비해
학생 4분의 1인데 교수는 2배

직원 1명이 학생 19명 맡아
성균관대 74명과 큰 격차

덩치 키우고 특권의식 안주
아태 대학 톱10에도 못들어

◆ '공룡' 서울대의 민낯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지난 10월 15일 장관 사퇴 20여 분 만에 팩스로 신청서를 내고 복직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이기주의와 특권의식, 그리고 안이한 학교 규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학이지만 글로벌 무대에선 '이류'에 머물러 있다. 영국 대학평가 기관 THE(타임스고등교육)에 따르면 '2020 THE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6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대학 순위로 좁혀보면 중국 칭화대, 싱가포르국립대, 호주 멜버른대, 홍콩과기대, 일본 도쿄대 등이 최상위권을 휩쓸 반면 서울대는 13위에 불과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서울대의 문제점으로 '최고라는 자만감' '공무원 마인드' '특권의식'을 꼽았다.

서울대의 문제는 영문과 교수 숫자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전임교원(정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 26명, 비전임교원(강사) 46명이다. 반면 서울대 영문과(학부) 재학생은 161명에 불과하다. 서울대 캠퍼스를 관악구로 이전한 직후인 1980년대 초반 한 해 모집정원이 80~100명에 달했지만 그 후로 숫자가 줄어 한 해 34명 정도다.

올해 313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연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 24명, 비전임교원 20명이 일하고 있다. 학생 수는 서울대의 2배인데 전임교원 수는 오히려 적다. 재학생이 601명인 고려대 영문과는 13명의 전임교원, 47명의 비전임교원을 두고 있어 서울대와 차이가 더욱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은 법인화 이전까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사립대에 비해 신분 보장이 강했다"며 "학생 수요는 크게 줄었는데 교수 숫자가 유지되는 건 노동 유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수는 2260명, 학생 수는 3만명대 중반이다. 학생 수가 비슷한 경희대는 전임교원이 1434명, 고려대는 1442명이다.

서울대 조직의 비대화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수에서도 드러난다. 서울대 전체 직원(일반직·기술직·계약직 포함) 수는 지난 4월 기준 1787명으로 411명인 성균관대의 4.3배다. 서울대 직원 1명당 19명의 학생을 담당하지만 성균관대는 직원 1명당 74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 최근 서울대에서 교수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는 "사립대는 11년째 동결된 등록금 여파로 교수 연봉 인상이 어려운데 서울대는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며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진한 기자 / 문광민 기자]

▶매경이 에어팟프로 씹니다! 'M코인'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473934>
